

언론중재위원회 NEWS **10** 사립

P R E S S A R B I T R A T I O N C O M M I S S I O N

2016 + October
Vol. 196

백성을 위한 마음이
자랑스런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시수파수타위 씨

예쁜 한글로 남편에게 사랑을 전해요

결혼 5년 차 주부 시수파수타위 씨는 라오스 결혼이주여성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 2013년 한국에 정착한 시수파수타위 씨에게 한국은 이제 제2의 고향입니다. 그녀에게 요즘 또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어 손글씨 쓰기인데요, 한글이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에 흠뻑 빠졌다고 합니다. 남편에 대한 애정을 담아 손글씨를 완성한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하네요, 가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시수파수타위 씨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과 언론 간 분쟁을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곳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 절차와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 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c.or.kr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

블로그 pacblog.kr

페이스북 facebook.com/pacnews

Contents

2016 October Vol.196

04 인터뷰

최재천 국립생태원장 / 이화여대 석좌교수

06 미디어트렌드

디지털 세탁소

07 언론중재법 NOW

이건 이렇습니다

08 문화토픽

구노의 프랑스 오페라 <로메오와 줄리에트>

09 세상읽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10 인증노트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11 언론법 이모저모

파워 오브 원

12 여행수첩

피요르드 여행

14 위원회 NEWS

15 조정중재 사례 / 책 리뷰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6년 10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4

편집·디자인 더에이치 TEL 031-247-5141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갈등을 넘어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최재천 국립생태원장 / 이화여대 석좌교수

2013년 ~ 국립생태원 원장
2006년 ~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1989년 미국곤충학회 젊은과학자상 수상
2014년 기후변화센터 공로상 수상
2015년 국민훈장동백장 수상
주요 저서 통섭적 인생의 권유(2013), 과학자의 서재(2011), 최재천의 인간과 동물 (2007) 외 다수

고즈넉한 서천의 너른 들판에
자리 잡은 국립생태원.
그러나 생태원의 탄생은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갯벌을 메우고 산업단지 유치
를 원했던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갈등이 자리했던 곳에
생태원이 세워졌고 무한한 생명이
살아 숨 쉬게 되었으며,
명실상부 서천의 보물이 되었다.
가을 하늘과 맞닿은 듯한
너른 들판 위의 국립생태원에서
최재천 원장을 만나
사람과 자연 그리고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한라산이나 설악산에 있을법한 국립생태원
이 서천에 자리 잡은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A. 생태원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청정자연
이 잘 보존되어 있어 연구가 가능한 곳에 있는
게 일반적이지요. 여기 국립생태원은 논을 개조
해 인공적으로 만든 곳이라 아쉬움이 있긴 하
지만 서천이어야만 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
니다. 새만금 매립 당시 애초의 계획은 군산과
장항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군산만 개발이 진행되면서 (서천과 인접한) 장
항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죠. 이후 장항을 개발
하려고 보니 세상이 변한거예요.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었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과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생태원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그렇게 국립생태원을 비롯해 해양생물자연관,
생태산업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Q. 자연을 닮은 생태원과는 썩 어울리지 않는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네요.**

A. 그래서 국립생태원은 출범부터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었죠. 다
행스럽게 두 해 연속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이 생태원을 찾아주었습니다. 주말이면 군산 시
내까지 생태원을 찾는 차량으로 붐비는데, 주말
평균 1만 명이 다녀간다고 해도 1년에 52만 명이
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죠. 최근
공주대의 분석에 따르면 생태원 개장 후 서천군
내에만 음식점이 200개 넘게 생겼더라고요.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증거겠
죠?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 어
려운 일을 자꾸 해내고 있네요. 하하하."

**Q. 원장님 말씀 중에 '생태'라는 단어가 계속
해서 등장하네요. 생태학이란 무엇인가요?**

A. 생태학자인 저보다 더 기가 막히게 생태학

을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토지를 쓰신 박경리 선생님입니다. 2002년에 박경리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 “나는 환경부란 단어가 참 싫어. 생태부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했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정말 감탄했어요. ‘환경’은 ‘둘러싸고 있다’는 뜻인데, 생물과 인간을 빼놓고 환경만 보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중간에 있고 생물이 있고 이 생물과 환경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 생태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한 설명이에요. ‘생태’란 ‘살아가는 모습’이란 뜻인데, 환경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게 생태학의 영역 속에 있고 인간도 생태의 일부입니다.

Q. 생태학자인 원장님께서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만나셨나요?

A. 2002년 한국에서 생태학계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생태학대회를 유치했는데, 기조강연자를 모시는 것이 제 임무였어요. 비록 우리나라 생태학이 많이 뒤쳐져있기는 하지만, 외국의 우수 석학들만을 기조강연자로 모시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지를 쓰신 박경리 선생님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죠. 기조강연에서 선생님은 자연을 훼손해오기만 한 인간이 이제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문하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로만 살아라.” 순간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이게 바로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입니다. 지금은 혼한 개념이지만 2002년 당시에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자 또는 개발하자고 번역하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정립이 안 된 상태였죠. 그런데 소설가가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해석했어요. 환경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살아가야 하는 곳인데 그들도 우리가 누릴 것만큼 누릴 수 있도록 잘 보존해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생태학을 공부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어린 시절 학교는 서울에서 다녔지만 방학만 되면 기차를 타고 제 고향인 강릉으로 달려가 개학 직전까지 열심히 놀았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대학은 동물학과로 진학했는데 동아리 회장만 9개를 맡았고 학생회관에 제 사무실과 비서 역할을 하는 후배가 있었을 정도로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뒤늦게 제 전공이 어릴 적 개울물이나 바다에서 첨벙거리며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됐네요. 결국 어릴 때 놀면서 하던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셈이에요.

Q. 동물들끼리 싸우기도 할 텐데요, 동물 세계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A. 동물 세계에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분쟁을 피합니다. 싸울 때도 물론 있지만 싸우지 않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붉은 사슴은 수놈이 암놈 여럿을 거느리는데, 변방의 수놈들이 호시탐탐 이 암놈들을 노립니다. 그런데 변방의



수놈들은 절대로 무작정 달려가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일단 근처에서 저음의 소리를 내요. 그러면 첩을 거느리는 수놈도 저음으로 응답합니다. 강한 저음을 낸다는 것은 울림통이 더 크다는 것인데 누가 더 저음을 낼 수 있는지 서로 가능해보는 것이죠. 도전자 수놈이 ‘내 저음도 만만치 않은데?’라고 생각하면 슬금슬금 다가가 두 수놈이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서 어깨높이를 견줘 봅니다. 만약 어깨높이가 낮다 싶으면 도전자 수놈은 조금 시간을 끄는 척하다가 도망칩니다. 반대로 겨뤄볼 만하다 싶으면 옆을 힐끔거리면서 보조를 맞춰 또 견승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제야 뿔을 부딪칩니다. 동물들은 우리 인간처럼 무모하게 덤비지 않아요.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동물은 진화해왔습니다.

Q. 분쟁 그리고 갈등과 관련하여 생태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A.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인류 전체가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어요. 사회 전체의 지혜와 지성이 낡아 버린 것이 그 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너무 빨리 변화하는 바람에 변화를 일으킨 인간조차 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밑바닥부터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 맞아떨어지지 않아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 진단이 맞다면 결국 해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닥이 흔들려도 기본을 다져놓은 선진국은 완충이 가능하지만 압축 성장 과정에서 당장 필요한 것들만 해결해 온 우리나라는 달라요. 구태의연한 답 같지만, 기초를 다지는 일을 이제는 진짜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곧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행 양재규(홍보팀장)
정리 및 사진 염아영(에디터)

디지털 세탁소

9월 중순 이탈리아에서 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섹스 동영상이 유출돼 온라인에 널리 유포되자, 자살한 사건이 보도됐다.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호기심과 오락거리였지만 은밀한 영역이 노출된 당사자는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누리는 정보화 세상의 그늘이다. 사적인 정보, 음란 영상 등은 전에도 유통됐지만, 인터넷에서는 한번 정보가 공개되면 순식간에 전파된다. 또 일단 유통된 정보는 개인이 관리하는 공간으로 옮겨지는 게 쉬운 까닭에, 아무리 삭제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삭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유럽과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세계 곳곳에서 '잊혀질 권리'가 논의되는 배경이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서 2014년 5월 세계 최초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지만, 이를 법률로 만드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인터넷 이용은 국경을 넘어 이뤄지지만, 법률과 문화적 기준은 문화권과 나라마다 고유하다. 미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유럽 사람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률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럽연합은 '잊혀질 권리' 입법화에 성공해 구글 등 검색서비스 업체에 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잊혀질 권리 또는 삭제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지만, 관련한 다양한 상업적 서비스가 성업 중이다. 바로 인터넷 평판 관리회사 또는 디지털 세탁소다. 미국 경찰은 법률 위반으로 체포된 현행범에 대해 상반신 사진(머그샷)을 찍어 공개한다. 속도위반이나 벌금 미납 같은 경범죄도 포함된다. 체포된 사람이 나중에 재판에서 무혐의로 드러나거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경찰서는 홈페이지의 머그샷을 지우지 않는다. 머그샷닷컴과 같은 상업 사이트는 이 점을 이용해, 미국 전역의 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머그샷을 모아 한 곳에서 서비스한다. 이 사이트에서 자신의 머그샷 사진을 삭제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미국의 정보공개법을 악용한, 합법적인 서비스다.

미국에는 온라인 평판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업체도 많다. 요즘은 취업이나 대학 입학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터넷 평판 조회는 기본이 됐다.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에서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력서만이 아니라 댓글이나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 파악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블로그 등에 있는 신청자의 '흑역사'를 삭제하거나 잘 보이지 않도록 해주고 돈을 받는 서비스가 성업 중인 배경이다.

인터넷의 얼룩진 기록을 지워주는 이러한 평판 관리회사가 국내에서는 '디



지털 세탁소' 또는 '디지털 장의사'로 불린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초 5년 안에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유망 직업군 37가지를 선정하면서 '디지털 장의사'를 포함했다. 강원도는 개인정보나 인터넷 글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설정하는 잊혀질 권리를 도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빅토르 마이어선베르거가 <잊혀질 권리>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정보 소멸 시한'을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국내에서는 2013년에 산타크루즈라는 디지털 세탁기업이 설립돼 영업 중이다. 이 회사 대표는 19년간 모델 에이전시 사업을 해오면서 고객인 모델들을 관리해왔는데, 모델들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피해가 생겨나 이를 처리하는 업무를 했다.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아예 전업하게 된 게 사업의 배경이다. 처음엔 주로 연예인과 기업들이 고객이었으나, 점점 일반인 고객들이 늘어나 현재는 13~17살의 청소년들이 전체 고객의 70%를 차지한다. 악성 댓글이나 성관계 등 사생활 동영상 삭제에 대한 요청이 대부분이다. 디지털 세탁업의 업무는 삭제 요청에 대해 사이트 관리자를 접촉해 최대한 대상이 되는 글의 삭제를 시도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자 이름을 검색 결과 첫 화면에서 밀어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경우다.

디지털 세탁업이 미래의 유망직종이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 서비스를 의뢰하는 상당수가 10대 중고생들이라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장 많이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걸 뜻하기 때문이다. 손쉽고 편리한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져올 그늘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건 이렇습니다

한국신문협회는 8월 31일 <신문협회보>에 위원회가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 보도 내용에 상당한 오해가 있어 유감을 표하며, 개정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위원회의 의견을 밝힙니다.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관하여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언론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뉴스 소비의 주된 통로는 인터넷인데 법원이나 위원회에서 인정한 침해적 보도가 인터넷에 남아있는 경우 지속해서 검색 및 전파되어 피해가 가중됩니다. 이에 위원회는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해 기존의 정정이나 반론보도 외에 원기사의 수정·보완,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한 접근차단 또는 삭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잊힐 권리’ 도입 시도가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개정안의 침해배제청구권은 ‘잊힐 권리’와 무관합니다. 잊힐 권리는 적법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개정안은 법원이나 위원회가 위법성을 확정한 보도만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위원회에 기사 수정·보완·접근차단을 구하는 조정신청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그러한 침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으며, 각급 법원은 허위임이 입증된 침해적 보도에 대해 기사삭제까지 명하는 실정입니다.

<신문협회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사 열람이 차단되는 임시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언론보도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청구는 위원회나 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의 수정·보완·삭제 권리 신설로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를 꾀하고 있다는 의심에 대하여

개정안은 위원회가 언론보도를 사전에 심의하여 수정이나 삭제를 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정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 전파가 가능한 기사에 한정되며 열람 차단을 통해 구제가 충분하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기사 삭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조정기관입니다. 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어떠한 구제절차도 개시되지 않으며, 침해배제청구 역시 당사자 간 화해와 합의를 위한 조정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의 법적 개념 수정은

위원회의 ‘언론검열기관화’라는 지적에 대하여

‘언론보도’의 정의를 수정해 사실기사뿐 아니라 의견기사 등을 포함시킨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때문입니다. 현재 법원 역시 언론의 사실보도뿐 아니라 의견 표현에 의해서도 인격권이나 명예가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언론중재법의 면책 조항 삭제로

언론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를 면책 조항에서 삭제한다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는 조항은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초상권, 사생활, 기타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는 법리는 판례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에 여전히 적용됩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허위로 입증된 침해적 기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인할 수 없는 피해이므로 언론사는 그러한 침해 상태를 배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언론중재법은 2005년 개정된 후 발전된 미디어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비하고 위법한 댓글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위법한 침해적 기사의 퍼글로 인한 피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정에 적합한 피해구제를 위해 위원회에 인터넷을 통한 피해 확산 방지 차원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충동적인 주인공과 서정적 오페라의 결합

구노의 프랑스 오페라 <로메오와 줄리에트>

Romeo and Juliet

올해로 서거 400주기를 맞이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예리한 시선으로 다양한 군상 속에서 찾아낸 인간의 본성을 밀바닥까지 꿰뚫어 본 작가다.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통해 말하고 있는 인간사의 대부분이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이치인 것을 보면 그가 인간에 대해 얼마나 깊이 성찰하고 탐구했는지 알 수 있다.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로 꼽히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모두 인간의 내적 갈등과 적나라한 본성을 냉혹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품들이다. 세속의 오욕칠정에 사로잡혀 끝없이 갈등하고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이 작가가 살았던 400여 년 전이나 오늘의 우리나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그의 위대함을 다시 보게 된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오페라 작곡가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의 4대 비극은 베르디를 비롯한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최소한 한 번 이상씩 오페라로 만들어졌고 여러 번 반복해 만들어진 작품도 많다. 비록 4대 비극에 꼽히는 영예는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젊은 셰익스피어가 썼던 어린 연인들의 뜨거운 애정비극은 비련이 넘치는 사랑이야기의 대명사로 기억되며 오페라의 명작으로 남아 있다. 바로 <로미오와 줄리에트>이다.

오페라의 주인공이 너무 현명하거나 신중해서 심사숙고 끝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점잖게 마무리를 짓는다면 상당히 교훈적인 작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관객들의 카타르시스는 전혀

자극할 수 없고 별다른 음악적 감동도 느낄 수 없는 맛있는 작품이 돼 버린다. 이런 점에서 청춘의 끓는 피를 가지고 사건과 사고를 연발하는 로미오는 아주 적합한 오페라 주인공인 셈이고 이에 못지 않게 충동적인 줄리에트도 마찬가지다. 15살 정도의 로미오와 13살인 줄리에트의 행동은 어떤 오페라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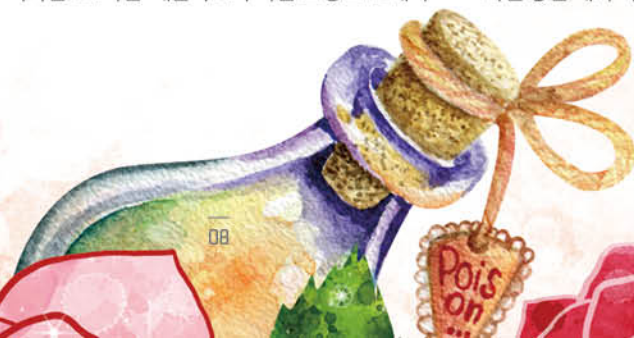
인공들보다 감정적이고 본능에 충실하다.

프랑스 작곡가 샤를 구노의 <로메오와 줄리에트>는 이처럼 오페라 주인공으로서 모든 덕목을 갖춘 매력적인 주인공들과 프랑스 오페라의 특징이 잘 결합된 매력적인 작품이다. 이탈리아 오페라와는 또 다른 세련되고 우아한 프랑스 오페라

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주인공들의 독창은 물론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어지는 두 주인공의 아름다운 이중창에서도 서정적인 낭만주의 프랑스 오페라의 전형을 만끽할 수 있다.

이 오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줄리에트의 아리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는 산뜻하고 발랄하면서도 품위 있는 멜로디가 일품인 왈츠풍의 곡이다. 곧 14살인데도 철들지 않는 줄리에트를 걱정하는 유모에게 그녀는 나는 아직 어리고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다고 노래한다. 다가올 사랑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는 사랑스러운 이 아리아를 부르는 줄리에트의 모습은 경쾌한 선율과 함께 사랑스럽게 그지없다.

이 오페라에는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만한 많은 요소가 들어있다. 우선 작품 서막에 시작되는 캐롤렛가의 화려한 무도회장 장면이나 몬태규와 캐플렛 두 가문의 남자들이 펼치는 결투장면도 흥미로운 볼거리다. 또 한눈에 사랑에 빠진 두 주인공의 발코니 신이나 둘만의 결혼식, 이들이 애뜻하게 보내는 하룻밤에서 쏟아지는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멜로디는 프랑스 오페라였기에 더욱 섬세하게 표현될 수 있었다. 잘 알려진 대로 구노의 오페라에서도 로메오와 줄리에트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다. 이들이 쓰러진 무대에서 음악은 세상을 저버린 두 청춘을 감싸 안으며 가슴 아픈 여운을 남긴다. 문학이 종합예술로 형상화된 좋은 예가 아닐까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트..., 요즘 익숙하게 들어보는 단어들이입니다. 이미 현실로 들어섰거나 조만간 우리 실생활에 가전제품처럼 스며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입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 발전 요인이 동력과 자동화, 디지털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은 단일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맥락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즉 융복합이 핵심입니다. 2020년까지 현재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지고 200만 개가 창출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을 꿰뚫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유연성. 유연성 없이는 앞에 열거했던 4차 산업혁명의 성과물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람과 사물·공간을 연결하거나, 시스템을 최적으로 제어하거나,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연결해 초지능 단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유연성이 없다면 창의적이지 못하고, 그러면 실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유연성의 반대는 경직성입니다. 불통, 변화 없음, 무전략, 하던 그대로..., 이런 개념들과 연결된 것이 경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전에 필리핀과 일본에서 생활해본 경험이 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일본인의 특성과 그 사회의 시스템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맥아더가 전쟁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호주 인근부터 남서태평양 섬들을 차례로 탈환하며 필리핀 마닐라로 향할 때 야전 지휘관들에게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귀관들은 일본군 부대와 만나면 먼저 공격하라. 그들은 잘 훈련되고 정신무장이 된 아주 강한 군대지만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으면 흐트러진다. 그들의 교육과 훈련은 경직되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더글라스 맥아더 1880~1964, 윌리엄 R. 맨체스터)." 맥아더는 미·

일군의 차이점을 유연성과 경직성에서 찾았고, 유연성이 경직성을 압도한다는 점을 기습작전을 통해 여러 차례 증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일본군을 궤멸시키고 일본 열도를 공격했지요.

제품화·규격화·표준화에서 유연성·창의성·다양성으로 넘어가는 4.0 시대에는 목표에 도달하는 효율적 단일 방안 체계가 목표는 주어져도 정해진 방법은 없는 체제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솔루션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최적화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또는 미래사회를 연구하는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4.0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현재 중간 또는 중간 이상 계층의 전문 직종들이 대거 사라지거나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투자 판단을 하거나, 기사를 쓰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의 직종 등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정확하고 빠른 결정을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승자독식구조가 더 강고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유연성과 창의성입니다. 4.0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일자리 또는 지금은 예상치 못하는 새로운 분야를 창출할 것이고, 승자독식구조를 완화시키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중장년층이라면 아무래도 유연성보다는 경직성과 더 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왔으니까요. 이게 세대 갈등과 충돌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요. 그러니 나이를 불문하고 지금부터라도 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4.0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유연성 높이는 방법'에 대해 과외라도 받아야 할 판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이가 맞는 동영상에 뉴스에 나왔다면, 방송사 홈페이지에 다시보기로 올라가 있는 이 동영상을 삭제하고 싶다고 했다. 상담신청인과 통화하면서, 그가 알려준 뉴스 동영상을 바빠 재생해 보았다.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보이는 여성에게 아이가 폭행당하는 동영상이었는데, 모자이크 처리가 충분히 되지 않아 아이의 지인이라면 이 동영상을 보고 알아볼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해자의 폭행 정도도 경미해 보이지 않았다. 상담에서 공감의 중요하지 않은가. 아줌마 특유의 오지랖으로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굳이 감추지 않았다. “어떻게 저런 선생님이 있나요?” 순간 침묵이 흘렀다. “사실은 아이를 때리는 선생님이 아이 엄마입니다.” 아뿔싸!

상담신청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 동영상은 한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어 아내가 많이 흥분했었나 봐요. 아내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상처는 받았겠지만,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이 뉴스를 통해 공개된 뒤부터는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고 있어요. 자신이 맞는 동영상을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 일도 아이한테는 충격이었던 데다가, ‘엄마한테 맞는 애다’라는 친구들의 놀림도 큰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뉴스는 폭행 동영상만 문제가 아니었다. 아이 엄마의 성과 나이, 직업, 거주 지역 등의 정보가 뉴스를 통해 공개됐는데, 이와 같은 보도의 가해자 정보 공개가 곧 피해자 노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가정폭력 문제의

특이점을 언론사가 간과한 것이었다. 동영상 자료에 아이 엄마에 대한 여러 정보까지 더하면, 아이를 추측하는 것이 더욱 용이한 상황이었다.

상담신청인은 기사 전체, 이것이 안 되면 폭행 동영상 및 가족을 추측할 수 있는 보도 일부만이라도 삭제되길 원했다. 손해배상은 전혀 원하지 않았다. 현행 언론중재법 하에서는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이 없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삭제나 수정을 청구할 수 없다. 공여지책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한 뒤, 언론사와 기사 삭제나 수정에 대해 합의를 시도해 보라고 안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은 조정기일 전에 언론사가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삭제하고, 가해자 정보가 노출된 기사 내용도 모두 수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또 언론사가 관리하는 유튜브 페이지에 있던 해당 동영상도 삭제되었다.

방송 당시 앵커가 “동영상 공개 여부에 대해 고민이 있었지만, 어디까지가 사랑의 매인 지를 같이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보도를 결정했다”라고 코멘트 한 걸 봤을 때, 해당 언론사는 동영상 공개에 대해서 나름의 고민이 있었던 듯하다. 언론사로서는 훈육과 가정폭력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익적인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여러디 어린 한 아이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지는 논의여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물리적인 폭행만이 폭력이 아니다. 한 아이를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공론화시키고 대중에게 그러한 맥락으로 노출시키는 것도 폭력일 수 있지 않을까.

파워 오브 원

한 야구선수가 여자 친구와 카톡 대화를 나누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타인에 대한 치명적인 혐담을 한 것이다. 이 일로 그 선수는 700만 원의 벌금과 50경기 출전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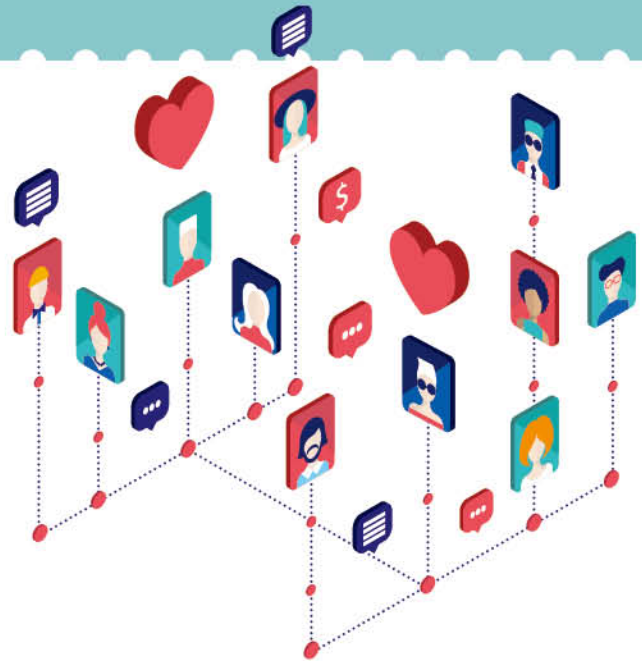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 중 더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기도 한다. 문제의 혐담을 퍼뜨린 이는 야구선수가 아닌, 그의 여자 친구인데 왜 야구선수 또한 처벌을 받았는가 하는 점이다¹⁾.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이 이른바 '전파성 이론'이다. 요즘 명예훼손 관련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법률용어이기도 하다. '전파성 이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다. 일단 퀴즈부터 풀어보도록 하자. 아래에서 제시하는 A의 세 가지 행동 중에서 B에 대한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일까?²⁾

- 1) A가 B에게 '야, 이 살인자야!'라고 말했다.
- 2) A가 C에게 'B는 살인자야'라고 말했다.
- 3) A가 광화문광장에서 'B는 살인자입니다'라고 소리쳤다.

문제를 푸는 열쇠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다.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307조나 정보통신망법 70조 등에는 항상 '공연히', '공공연하게'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한 말이나 글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해야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 명예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그 훼손행위에 왜 '공연성'이 필요한지 심본 이해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명예, 즉 사람의 평판이다. 평판을 훼손하는 일을 문제시하는 것은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인류의 오랜 관행이다. 사람이 모인 집단 속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평판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판은 생명·건강·재산만큼이나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평판이지만 누군가의 말과 글에 의해 쉽게 무너지고 훼손될 수도 있다. 그런데 말과 글은 어떻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일까? 바로 '전파'됨으로써 훼손한다. 말과 글이 발화 지점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평판은 훼손되지 않는다.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말과 글이란 그 속성상 전파되고 확산되기 마련이다.



판례는 '공연성'을 다수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소수라도 불특정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사람의 힘'에 주목했고 이것을 가리켜 '전파성 이론'이라 부르게 되었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머문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최근 들어 부쩍 '전파성 이론'이 자주 언급되는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 사람 사는 세상이야 원래부터 각종 관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세상 참 좁네"라는 말처럼 안 그래도 가까웠던 사람 사이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더 가까워진 것이다. 이 사실을 매순간 일깨워주려 듯 지금 이 순간에도 휴대폰 단톡방에 '카톡카톡' 하며 실 새 없이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알린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 혹시 방금 전 내 카톡으로 다른 누군가의 평판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글이나 사진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퍼나르기보다 조용히 지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다. 단 한 사람에게 불과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의 한 지점일 수 있기 때문이다.

1) 여자 친구에게는 야구선수보다 중한 형벌(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2) 확실한 정답은 3)이다. 1)은 명예훼손이 안 되고 2)는 C가 누구냐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C가 B의 부모·형제·배우자·자녀 등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안 될 것이나 그 밖의 사람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것이다.

비경의 집합체와 억척스런 인간의 교향악

피요르드 여행

이해준 기자는 <헤럴드경제> 문화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한국을 출발해 2012년 7월까지 가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남미~북미로 '희망찾기 세계일주'를 펼쳤다. 현재는 <헤럴드경제> 정치부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피요르드로 가는 마나먼 여정

피요르드 여행의 기점인 노르웨이 베르겐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한국에서도 멀지만 유럽을 여행하고 있던 우리 가족에게도 그러했다. 필자는 둘째 아들과 함께 독일 베를린에서 기차를 타고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코펜하겐에서 야간 페리로 오슬로로, 다시 오슬로에서 야간 기차로 베르겐으로 이동했다. 하루 종일 오슬로를 돌아다녔던 것을 포함해 2박 3일이 걸렸다. 하지만 여정은 여정대로 흥미진진했고, 피요르드는 그 시간과 노력을 보상하고도 남았다.

피요르드는 수만 년 전 빙하가 흘러내리면서 형성된 U자 또는 V자 모양의 깊은 협곡이다. 그 규모는 상상 이상이다. 가장 유명한 송네 피요르드는 총길이가 204km에 달하며, 수심이 깊은 곳은 1,000m가 넘는다. 협곡을 이루는 산의 높이가 최고 1,800m에 달해 '피요르드의 왕'이라고도 불린다. 이외에 '왕관을 쓴 진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가이랑에르 피요르드, 노르웨이에서 두 번째로 긴 179km의 하당게르 피요르드, 여러 지층이 합쳐져 아름다운 빛깔을 선사하는 루세 피요르드 등이 주요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피요르드 여행은 날씨가 온화하고 해가 길어지는 4월 말부터 9월 까지 피크이다. 이때 고원지대의 빙하가 녹으면서 깎아지른 절벽으로 때로는 안개처럼, 때로는 격류를 이루며 내리쬐히는 폭포가 장관을 이룬다.

우리는 송네 피요르드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내륙위 피요르드를 돌아보는 코스를 선택했다. 노르웨이 제2의 도시 베르겐에서 기차와 버스, 보트를 타고 피요르드를 돌아본 다음 협곡에 놓인 플램 열차를 타고 산악지역의 비경을 감상하는 코스다. 오전 8시 40분 베르겐 역에서 시작해 보스~구드방엔~플램~미르달을 거쳐 오후 6시 베르겐으로 돌아오는 하루짜리 프로그램이다.

지구상 최고 비경의 집합체

먼저 베르겐에서 기차를 타고 약 1시간 10분 달려 보스에 도착했다. 깊은 협곡과 호수, 마을이 조화를 이루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보스 역에 내리니 바로 앞에 버스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철도를 놓기도 어려운 험준한 산악지대를 가로질러 이동해야 한다. 버스로 1시간 달리니 송네 피요르드의 가장 깊은 협곡에 자리 잡은 구드방엔이 나타났다.

구드방엔에서 바라본 피요르드는 마치 깊은 산속의 호수 같았다. 하지만 이곳은 바다다. 물은 수정처럼 맑고, 주변의 깎아지른 산이 그

파란 하늘과 설산, 호수가 조화를 이룬 피요르드 협곡





피요르드 협곡을 운항하는 페리

위에 투명하게 반사되었다. 워낙 깊은 곳으로 사람도 거의 살지 않고, 공장과 같은 오염 유발 시설도 없으니 자연이 순수한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구드방엔에서 30여 분 쉬면서 작은 가게도 구경하는 등 여유를 가진 다음 유람선에 올랐다. 본격적인 피요르드 탐방이 시작되었다. 보트는 깊은 협곡 사이에 들어찬 짙푸른 물살을 가르며 미끄러지듯이 나아갔다. 좌우 양편으로는 만년설에 덮인 영봉들이 도열해 있고, 호수 같은 바다가 협곡 사이로 길게 이어져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다. 산허리에서는 눈 녹은 물이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아래로 떨어졌다. 파란 하늘은 쿡 찌르면 물이 떨어질 것처럼 투명했다. 여간해서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둘째 아들도 “와, 멋있다. 정말 멋있어”하며 연신 감탄사를 토해냈다.

형언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풍경이다. 만년설에 덮인 히말라야와 알프스의 영봉,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아름다운 호수들, 유럽의 전원마을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 같았다. 이들 모두가 숨 막힐 듯 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가슴이 시원해졌다. 무언가 시야를 가리고 있던 반투명의 막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순수한 자연은 묘한 매력을 갖고 있다. 거기에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들, 절망이나 희망, 슬픔과 기쁨, 사랑과 증오 같은 것들을 용해시키는 힘이 있다. 때 묻지 않은 자연과 하나가 되면서 원초적인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세상 전부인 것처럼 무겁게 짓누르던 현실의 잡다한 찌꺼기들이 아주 작은 점으로 바뀌고, 대자연 속에 선 순수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힐링이다. 사람들이 지구의 끝까지 가보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피요르드는 이런 점에서 최고의 여행지다.

자연에 깃들어 사는 억척스런 사람들

피요르드 여행의 멋은 비경을 감상하는 것만이 아니다. 험악한 자연



피요르드 여행의 기점 역할을 하는 노르웨이 제2의 도시 베르겐

속에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인간의 억척스러움과 강인함, 그리고 겸손함을 발견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사실 이 지역은 위도가 워낙 높은 데다 6개월 이상 눈에 덮여 있어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곳이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사람들은 절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협곡 아래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작은 마을들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마을들은 자연 속에 깃들어 있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연을 훼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사실 이곳에서 인간의 의지에 맞추어 자연을 개조하거나 정복하려 한다면 생존이 어려울지 모른다. 자연에 깃들어 순응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생존법이다.

2시간 동안 피요르드의 물살을 가르며 도착한 플람에서 미르달까지 이어지는 플람철도는 인간의 억척스러움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걸작이었다. 피요르드 주민과 베르겐 지역의 소통을 위해 1923년 건설을 시작해 20년 만에 완공된 이 철도는 산을 깎고 산허리에 터널을 뚫어 만든 ‘비현실적인’ 철도다. 플람의 해발고도가 2m인 반면 미르달은 866m 지점에 있어 철도가 거의 수직으로 깎아지른 산과 그 사이의 계곡을 따라 올라가야 했다.

기차가 올라갈수록 아래쪽으로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지형이 험해 기차가 360도 이상 회전해 산을 한 바퀴 빙 돌아서 올라가기도 했다. 지그재그 회전을 할 때마다 관광객들이 왼쪽 창문으로 물렸다가 다시 오른쪽 창문으로 물렸다가 하면서 풍경을 감상했다. 그럴 때마다 탄성이 쏟아졌다.

미르달에 도착해 다시 기차를 갈아타고 베르겐으로 돌아옴으로써 피요르드 탐방이 끝났다. 방금 다녀온 곳이 꿈이었던지 현실이었던지 혼돈이 일 정도로 났을 빼앗긴 여정이었다. 태어나서 한 번은 꼭 돌아보아야 할 곳이었다.

COMMISSIONERS 위원동정

•홍은희 중재위원, <제6차 여성사박물관 포럼> 참석

홍은희 중재위원(서울제1중재부,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여성사박물관 포럼>의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여성과 언론, 자유와 평등의 햇불을 드높이다'를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홍 위원은 '사회적 약자의 제자리 찾기'에 힘쓴 여기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강희 중재부장, 전주소년원 방문

박강희 중재부장(전북중재부,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은 9월 7일 전주 소년원이 마련한 업무설명회에 참석했다. 박 부장을 비롯해 함께 소년원을 찾은 전주지법 판사 및 직원들은 소년원 교육과정 및 업무현황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소년원 직원들과 함께 고충사항을 논의하고 교육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양태경 중재부장, <찾아가는 열린 법정> 심리 진행

양태경 중재부장(충북중재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이 9월 8일 청주대 청석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열린 법정> 행사에 참석했다.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법원 이미지를 전달하고 신뢰를 강화하고자 마련한 이 행사에서 양 부장은 A 씨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B 씨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심리를 맡아 진행했다.

•지성우 중재위원, 북경대 특강

지성우 중재위원(서울제1중재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9월 8일 북경대를 방문해 '한국 언론 및 정보통신 규제기관들의 구조와 권한'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박종훈 중재부장, 국제학술대회 사회

박종훈 중재부장(부산중재부,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이 9월 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법원과 국민 간 소통을 위한 노력과 경험을 비교 및 공유하고자 부산지법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 부장은 재세션 '사법부와 국민의 소통, 현황과 과제'의 사회를 맡아 발표와 토론을 이끌었다.

•이완수 중재위원,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토론

이완수 중재위원(경남중재부,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은 9월 9일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 참석했다. '사학비리에 눈감은 언론 : 비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이 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사학비리 관련 신문 보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논했다.

•김동규 중재위원, 건국대 KU미디어센터장 취임

김동규 중재위원(서울제8중재부,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이 9월 19일자로 건국대학교 KU미디어센터장에 임명되었다. 이로써 김 위원은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과 KU미디어센터장을 겸하여 맡게 되었다.

제5~6차 갈등 해결 역량강화 연수 시행

위원회는 <제5~6차 갈등 해결 역량강화> 연수의 일반 및 심화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9월 19일, 21일, 23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일반과정에서 위원회는 법원 소송 외 분쟁해결 방법인 ADR 제도,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비폭력 대화 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어 9월 28일과 30일에 진행된 심화과정은 연수생들이 언론조정·중재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 모의조정을 체험하며 갈등조정 노하우를 익히고, 일반과정에서 배운 비폭력 대화 방법을 적용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유명 연예인 성범죄 관련 보도 시정권고

위원회는 제8차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유명 연예인의 성폭행 혐의 고소 사건 보도 중 단순히 고소인의 일방 주장만을 토대로 연예인의 실명을 밝혀 보도한 219개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해당 기사를 본 독자들이 고소된 연예인을 성폭행 범죄자로 오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에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 피고소인이 유명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 확정되지 않은 성폭행 혐의 사실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언론중재> 가을호 (통권 140호) 발간

<언론중재> 가을호가 9월 30일 발간됐다. 'Focus on Media' 코너에서는 '루머 탐하는 사회, 지라시 권하는 SNS'를 주제로 각기 다른 관점에서 살펴본 세 가지 글을 수록했다. 이 외에도 검색 알고리즘, 고소당한 유명인사 보도를 둘러싼 언론사의 명예훼손 책임 관련 판례,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등에 관한 글을 담았다.



신청인의 신원이 그대로 노출된 인터뷰 영상을 게재한 보도, 언론사 사이트 및 기자 페이스북에 게시된 해당 영상 삭제로 조정 성립



A 언론사는 웨딩업체 관련 협회의 가격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협회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게 벌금 부과 및 협회 탈퇴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웨딩업체 운영자이자 협회 관계자인 신청인과 나눈 인터뷰 영상을 첨부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영상이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고, 영상의 사용범위 또한 들은 바 없으며, 영상을 임의로 짜깁기하여 자신을 대표적인 악덕업체로 묘사하였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해당 영상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로 옮겨져 악플이 달리면서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사업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취재 당시 동영상 촬영과 이를 보도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전달했고, 다만 모자이크나

변조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재부**는 업계에서 다소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모자이크나 변조 없이 보도한다고 알렸다면 신청인이 좀 더 신중하게 인터뷰에 응했다거나 인터뷰를 거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터넷에 해당 동영상이 유포되었고, 이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국, 신청인과의 대화 동영상을 언론사 사이트와 기자의 페이스북에서 삭제하고, 향후에도 해당 동영상이 언론사 사이트에 게시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시하는 등 중재부의 노력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BOOK

책 리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저.
현대문학, 2012

종의 기원

정유정 저.
은행나무, 2016

인간의 내면, 그 선과 악에 대하여

경찰을 피해 달아난 좀도둑 3인방이 '나미야 잡화점'으로 숨어든다. 그리고 이들이 과거로부터 날아든 편지에 답장을 하면서부터 시간을 초월한 고민상담이 이어진다. 이 좀도둑들의 솔직한 고민상담은 상담자 뿐만 아니라 보잘 것 없던 자신들의 인생에도 큰 기적을 가져다준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인기 추리 소설 작가인 '히가시노 게이고'가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선의'를 다룬 훈훈한 소설이다.

한편, 〈종의 기원〉은 〈7년의 밤〉, 〈28〉 등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의 신작이다. 사이코패스 '유진'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이 소설은 존속살인 등 충격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작가는 책 말미에 이 책이 독자들에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다며 예방주사를 맞는 심정으로 읽어달라고 당부한다.

인간의 내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두 가지 소설을 모두 읽고 나서 떠오른 생각 하나.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선택은 독자들의 몫이라. 인간의 내면에 대해 찬찬히 들여다보는 두 소설을 통해 이 가을 인간성에 대해 한번 성찰해보길 바란다.

국민과 언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 함께 만들어 갑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경우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해드립니다.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

